

역사·문화 스민 풍경 앵글에 담다

광주시립사진전시관 5월26일까지 '오상조-설화의 풍경'展

운주사·당산나무 등 향토 풍경 60점
29일 전시연계 '작가와와의 대화' 마련

한국 향토 풍경에 나타난 고유의 역사와 문화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사진전이 열린다. 광주시립사진전시관은 오는 5월26일까지 오상조 작가를 초청, '설화(說話)의 풍경'전을 마련한다.

전시는 40여년간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가 있는 풍경을 사진으로 기록하는 외길을 걸으면서, 사진교육과 지역 사진예술 발전에 헌신해온 사진가 오상조의 작업세계를 조망하는 전시다. 특히 올해는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로, 전시는 오 작가가 펼쳐 놓은 향토 풍경 속에서 우리 땅에 녹아 있는 민족의 고유한 정서를 더듬어보게 한다.

작가는 1981년 '오상조 사진연구소 개관기념전'을 시작으로 전시와 사진집 출간을 40여년 꾸준히 해오고 있다. 사진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1980년대 그는 전주대 박물관의 요청으로 1983년과 1984년 2년간에 걸쳐 전북지역에 산재해있는 문화재를 촬영했다. 그 작업을 계기로 우리 문화유산에 관심을 더욱 갖고 문화재 기록 사진 작업을 지속하게 됐다.

특히 1984년 광주대 부임으로 광주에 근거지가 마련되면서 남도지역을 가까이서 만나게 되면서, 40여년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유·무형의 문화자산을 직접 기록해 왔다.

전시 구성은 오상조 작업의 중요한 주제로 대별되는 '운주사', '당산나무', '남도 사람들' 시리즈로 압축하고, 각 시리즈의 대표 작품으로 구성됐다. 특히 '남도 사람들' 시리즈 작품은 사진집으로는 출판했지만 전시장에서 전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오상조 작가는 "사진의 가장 큰 본질은 기록성이라고 강조하며, 사람들이 촬영할 당시는 평범하고 사소한 것들도 훗날에는 그 시대상을 생



오상조 작 '벚꽃 속의 석불 군상'



오상조 작 '청학동' /광주시립사진전시관 제공

생하게 보여줄 수 있는 역사성이 있다"며 "이 역사성이 과거와 현재를 분석하고 예측해 올바른 삶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사진의 힘"이라고 말했다.

1952년 전북 장수 출생인 오 작가는 중앙대 사진학과 졸업한 후 전북대 경영학 석사, 중앙대 미술학 석사를 졸업했다. 16회의 개인전과 다수의 단체전에 참여했으며, 광주대 사진영상학과 교수(1984~2019.2), 광주대 문화예술대학장(2009~2011), 한국사진학회 회장(2004~2008)을 역임했다.

한편, 오는 29일 오후 3시 전시장에서 전시연계 프로그램으로 '작가와와의 대화' 시간이 마련된다.(문의 062-613-7125) /정겨울 기자

同人선생의 易經 강좌

<112> 육십사괘 해설 : 27. 산뢰이(山雷頤) 中

사이영귀(초구), 전이불경(육이), 불이정흥(육삼)

<舍爾靈龜, 顛頤拂徑, 拂頤貞凶>

산뢰이괘(山雷頤卦)의 초효는 '사이영귀 관아타이흥'(舍爾靈龜 觀我朵頤凶)이다. 즉 '너의 신령스러운 거북이를 버리고 나의 늘어뜨린 턱을 보면 흉하다'는 뜻이다. 즉, 내가 입에 가득 넣고 씹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이 먹는 것을 침을 흘리면서 부러워하고 있다는 것이다. 효사 중에 '너' 이(爾) 와 '나' 아(我)가 대칭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경우는 풍택중부(風澤中孚) 구이효도 그러한데 다른 점은 중부괘에서는 구이가 구오에 대해 말하는 경우이고 이괘의 초구는 상구에 대해 말하고 있다는 것이다. '영귀'(靈龜)라는 의미는 신령스런 거북이라는 것으로 귀한 것, 존경할 만한 것이라는 뜻이다. 거북이는 식욕이 아주 좋으나 절제를 잘하고 장수하는 십장생의 하나이니 신성시할 수 있는 신령귀물(神靈貴物)이다. '관아타이'(觀我朵頤)라는 것은 남의 것을 보고 침을 흘리면서 탐내는 얼굴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다. 초구는 진괘의 주효로 훌륭한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의 것이 더 크게 보이고 남의 꽃이 더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좋은 개성과 장점을 버리고 남의 것을 욕심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이양(頤養)의 도(道)에서 가장 흉한 것이고 어떻게 작용해도 귀(貴)하지 못하니 상전(象傳)에서는 '역부족귀아'(亦不足貴也)라 했다. 자기의 것이 좋은 것을 모르고 남의 것을 탐하니 스스로 존경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고 영귀(靈龜)의 영력(靈力)을 모르는 것이다.

이지선(頤之劦 初動)	
산뢰이	산지박

점해 초구를 얻으면 사람으로 말하면 스스로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보지 못하고 남의 것을 욕심내는 나쁜 버릇을 가진 사람으로서 일에 당해 망설이는 경향이 있고 계속적으로 새로운 일에 손대 실패를 한다. 사업, 거래, 지망 등은 옛일을 지켜 열심히 해 나가면 길하고 올바른 일에 스스로 사명감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는 것이 좋다. 학생은 학생답게, 평사원은 평사원답게, 부인은 부인답게 자신의 일에 전념하면 마침내 길(吉)을 얻는다. 혼인은 서로 이야기하는 잘 돼가지만 변괘가 박괘(剝卦)이므로 파경(破鏡)의 우려가 있으니 그만 두는 편이 좋고 임태는 타인에게 자금을 받아 부절제해 스스로가 괴롭고 순산이 어렵다. 기다리는 사람은 소식을 접하기 어렵고 가출인은 사업의 실패나 혼들림, 공상(空想)에 빠져서 나갔거나 이양(頤養)의 어려움 때문에 나갔고 잘못하면 '턱을 늘어 뜨린다'해 '타이'(朵頤)라 했으니 목을 매는 수도 있다. 분실물은 흩어져 찾기 힘들다. 병은 내괘 진(震)이 곤(坤)으로 변했으니 위장장애, 이양괘이니 입, 인후(咽喉), 설사 등으로 볼 수 있지만 위험한 상태에 있다. 날씨는 흐리고 안개가 자욱하다.

[실점예]로 '모인의 전직(轉職) 김흥여하'를 문점해 이괘(頤卦) 초효를 얻었다. 점고하기를 초효의 효사에 '사이영귀 관아타이'라 했으니 '내가 가지고 있는 신령한 거북이를 버리고 남의 턱이 더 커 보여 침을 흘리면서 탐하고 있다, 내 것을 지켜야 한다. 옮기지 않는 것이 좋고 옮기고 자 하는 직장이 현재의 직장보다 못하다'고 했다.

육이의 효사는 '전이 불경 우구이 정흥'(顛頤 拂徑 于丘頤 征凶)이다. 즉 '거꾸로 기름을 받으니 경우에 맞지 않다. 언덕에서 기름을 받고자 나가면 흉하다'는 뜻이다. '전이'(顛頤)라는 것은 자기를 기르는 방법이 거꾸로 되었다는 의미로 이(頤)의 도(道)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육이의 효는 음으로 힘이 약하다. 그래서 자기를 기를 수 없어 음양상응하는 양효를 찾아 기름을 받아야 한다. 육이와 음양상응하는 효는 군위에 해당하는 5효가 이양(頤養)하는 가장 올바른 위치다. 그러나 오효 역시 음이여서 상응하지 못한다. 별수 없이 상구를 찾아 나서는데 상구는 양효로 음양은 맞으나 자리가 상응하는 응비(應比)의 효가 아니고 이양의 주인에 해당하지도 않다. 그래서 상구를 추구하면 흉한 것이다. 이를 상전에서는 나아가면 동류를 잃어 흉하다해 '행실류아'(行失類也)라 한다. 이양(頤養)의 주인 위치에 있는 육오를 버리고 상구를 추구하니 흉이란 것이다. 이양(頤養)의 도에 있어서는 힘이 없는 육이는 차라리 친비

(親比)하는 초구로 가야지 응비하지 않는 상구로 가서 이양을 구하는 것은 어리석고 흉한 것이다. 그러나 육이는 실무 책임자인데 초구 아랫사람에 의해 길러지기 때문에 경우에 맞지 않고 이를 공격하면 흉하고 모든 것을 잃는다.

이지손(頤之損 二動)	
산뢰이	산택소

외의 손아래 사람에게 배신당하거나 손윗사람에게 외면당해 화를 초래하고 실패하기 쉽다. 사업, 거래, 교섭, 바람 등은 변괘가 산택소(山澤損)으로 모두 부류하는 편이 무난하다. 육심에 눈이 멀어 파산에 이를 수 있고 본인으로 인해 타인의 장래까지 망치는 수가 있다. 혼인은 상대의 지참금이 목적일 수 있고 부창부수(夫唱婦隨)가 아니라 처(妻) 쪽이 똑똑해 전이(顛頤)하는 경우일 수 있으며, 상대를 진심으로 원하는 것보다 상대가 가지고 있는 다른 무엇이 목적이 돼 결혼하는 경향이 많다. 이로 인해 한 사람과는 못살고 두세 번 결혼할 수 있다. 임신은 확실하고 효사에 정흥(征凶)이라 했으나 무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기다리는 사람은 양(陽)이 자라고 있으니 이쪽에서 나아가는 것은 기다리고 있는 상이고 가출인은 정당한 일이나 혼인 등을 하기 싫어 집을 나가 아랫사람의 집에 기숙(寄宿)하고 있거나 여자와 살림을 차리고 여자가 벌어먹고 살고 있다. 분실물은 예상과는 반대 방향에서 찾을 수 있으나 손상돼 있다. 병은 양기(陽氣)를 보충하는 영양 섭취 상황에 놓여 있는데 효과가 없다면 약화될 수 있고 증상의 변화가 있다면 패유로 향하는 전조(前兆)다.

[실점예]로 '모인의 성격 및 인품 여하'를 점해 이괘(頤卦) 육이를 얻었다. 점고하기를 '이 사람은 약속을 손바닥 뒤엎듯이 하고 경우가 바르지 않으며 믿을 수 없는 사람으로 갈피를 못 잡는 사람이니 이 사람과의 모든 일을 중지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했다.

육삼의 효사는 '불이 정흥 십년물용 무유리'(拂頤 貞凶 十年勿用 无攸利)다. 즉 '기르는 일에 거스르니 바르더라도 흉하다. 십년동안은 쓰지 못하고 이로울 바가 없다'는 뜻이다. 육삼도 육이처럼 음효(陰文)이니 먹는 것(口實)을 다른 사람에게 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육이에서는 '불경'(拂徑), 육삼에서는 '불이'(拂頤)라 해 경(徑)과 이(頤)가 다르다. 이양(頤養)의 도에 있어서 불경은 기르는 바른 길(正道)이 아니라 잘못된 것이므로 육이가 육오가 아닌 아래의 초구에게 얹어져 기름을 구하니 상도에 어긋난다는 뜻이다. 불이는 기르지 못하고 위배되니 육이보다 기름에 실패한다는 의미가 강하다. 그 이유는 이양(頤養)의 구실(口實)은 육오에서 구해야 하는데 육삼은 육오와 응(應)도 비(比)도 아니어서 음양상응하는 상구에서 구하니 기름을 받지 못해 흥(貞凶)하고 이로울 바가 없기(无攸利) 때문이다.

이지비(頤之貴 三動)	
산뢰이	산화비

은 이로울 바가 없으니 포기해야 하고 임태도 영양 불충분으로 난산이다. 가출인은 결단 번지르르하지 곤궁에 처해있고 기다리는 자는 소식을 있으나 오지 않은 편이 좋으며 분실물은 발견되니 속이 비어 알맹이가 없다. 병은 음부(陰部)의 병으로 십년물용의 계율을 지키지 않으면 재발된다. /동인주역명리학당(062-654-4272)



‘봄의 꿈길에서’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 23일 정기연주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지휘 윤영문)은 오는 23일 오후 7시 광주문화예술회관에서 대극장에서 제128회 정기연주회 '봄의 꿈길에서'를 개최한다.

첫 무대는 봄을 여는 잔잔한 합창곡으로 '봄이 오너라', '꿈길에서'를 비롯해 멘델스존의 대표곡 '노래의 날개 위에', '잠보 브와나&쿰바야'를 들려준다. 특히 '노래의 날개 위에'는 아르페지오 반주의 아름다움이 돋보이는 곡이다.

두 번째 무대에서는 파헬렐의 대표곡으로 잘 알려진 '개논'(Canon)을 비롯해, 퍼커션 신보영의 협연으로 '알렐루야 알렐루야'

(Alleluia Alleluia), 현대 무반주 합창의 대표곡 '니옹 니옹'(Nyon Nyon)을 들려준다.

마지막 무대는 한국민요 합창곡으로 '강강술래', '한강수 타령', '빛고를 아리랑'을 들려준다. '빛고를 아리랑'은 2012년 광주세계아리랑 축전 주제곡으로 1980년 광주민중화운동의 열이 담긴 곡이다.

공연은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과 함께 광주CBS 여성합창단, 파이오니아 남성 중창단이 특별 출연한다. 티켓은 전석 1만원(학생 50% 할인).(공연 문의 062-613-8246) /정겨울 기자

한국형 연금 발전소 분양 (태양)

달팽이 사육장(건물 위)가중치 1.5배
100KW급 월 270만원 예상
(+1층 농장 임대비)

땅 + 건물 + 태양광
(선로 걱정 없는 한국형)

2년 6개월이면
현금/투자/회수 가능

분/양/지/역

- 경기도 안성시 잔여분 2기
- 영암 신록면 잔여분 5기
- 영광 흥농을 잔여분 3기
- 2019년 10월 준공 예정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정직·신뢰
(주)해가온 개발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이 길 영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층

최고의 차량과 최상의 서비스 28석 무등, 45인승 80여대 보유

<관광, 예식, 회사 워크숍, 기업체 통근 차량, 예약상담 문의>



예향예향고속관광
YEHYANG TOUR

(유)예향고속관광 (전세버스, 여행사)
홈페이지 : www.yh-bus.com
전화 : 062-944-5775 팩스 : 062-944-5995